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산업 현황과 경제정책 시사점에 관한 고찰

- 동북아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Asset Management and Major Implications
of Economic Policy in Korea & Singapore
- Focused on Financial Hub in Northeast -

이 명 표 *

目 次	
I. 서 론	III.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산업 현황
II. 한국의 자산운용산업 현황	IV. 경제정책적 시사점

I. 서 론

동북아시아위원회는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¹⁾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우리나라가 기존의 제조업,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서는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금융허브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연결하여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담당하는 중심지로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중되고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제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실물부문의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중진국에 들어섰으나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주식회사 IMC 대표, 주식회사 새한 경영고문

1) 국가홍보처(2003. 12),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의 비전과 과제』, pp. 64-77.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실채권처리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금융수요, 고령화 현상에 따른 연기금의 증가 등에서 파생하는 금융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허브로 부상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실물경제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계기로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개방이 진전되었다는 점이 상대적인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수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화된 금융기관의 진출이 미흡하고 경쟁력을 갖춘 금융분야가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기회요인으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구조조정, SOC 개발 등 동북아지역에 특화 가능한 틈새 금융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결국 싱가포르 등 기존의 국제금융센터, 새롭게 부상하는 상하이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단기간내에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허브의 추진은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적합한 금융허브의 모델에 있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센터의 추진은 금융허브구조의 취약성, 원화의 국제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및 주변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하고 일정부문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금융센터의 추진이 적절하다 하겠으며, 특히 연기금, 외환보유액 등 잠재적 자산운용수요와 동북아지역의 특화금융수요 등 잠재역량을 바탕으로 특화된 금융허브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허브 추진전략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홍콩, 싱가포르와는 차별화된 금융허브 달성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중장기적인 3단계 금융허브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제1단계(2003~07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매력도 제고, 동북아역내 리더십 구축, 경쟁력 있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7대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선도산업으로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세계 50대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거점을 유치하며 한국투자공사(KIC)를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동 연구는 금융허브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정부가 선도산업으로 선정한 자산운용업의 육성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연구는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자산운용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 육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 현황, 발전과정과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싱가포르의

2) 7대 과제는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관련 이니셔티브 확보,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국투자공사 설립, 규제·감독시스템 혁신, 경영·생활 환경개선 등이다.

경우 아시아지역 국제자산운용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각각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국가들의 경우 영미권의 금융산업 전통과 관례 및 제도적인 인프라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자산 투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공사인 GIC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업 육성방안으로서 제시된 KIC가 이를 벤치마킹한 조직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싱가포르의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에 바람직한 육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은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즉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연기금운용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외자산운용사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수준 향상으로 자산운용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국내자산의 적절한 해외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의 추이를 보면 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감소세와 은행 예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여 자산운용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산시장 현황을 보더라도 1999~2002년 말까지 선진국 시장은 주식시장의 침체로 불황을 경험하다가 2003년 이후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시의 급락기를 거쳐 2000년 초까지 급등세를 시현한 후 2002년 이후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국내 자산운용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주식시장 약세로 인한 수익률 약세와 이로 인한 자산운요상의 수익성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장 또한 불확실성일 증가하면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운용시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요인 또한 병존한다. 즉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는 자산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투자형태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자산운용산업 전반에 투자시스템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통합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을 통해 자산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금융시장 공급자로서 국내 보험시장의 확대와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연기금시장의 확대는 연기금체계의 개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국내외 유수의 자산운용전문기관이 국내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규모 : 금융기관 보유자산

(단위 : 십억 원)

연도 말	투자펀드	은행예금	투자신탁	증권사보유자산	MBCs
1998	203,509	245,549	154,314	6,302	40,405
1999	200,070	309,282	117,855	8,307	21,075
2000	144,981	394,749	75,693	8,478	10,226
2001	160,434	444,569	78,408	12,504	7,639
2002	181,157	503,059	70,373	11,285	25,885
2003	151,721	545,225	54,067	14,771	18,487

주 :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단기예금(MMF), 파생상품펀드 등이나 투자신탁상품은 제외됨. 은행예금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순 CD 발행규모를 포함. 증권사보유자산은 고객예치금과 환매채 포함. MBCs(종금사 : Merchant Banking Companies)는 bills issued + CMA + bills resold임.

자료 : 한국자산운용협회(www.kitc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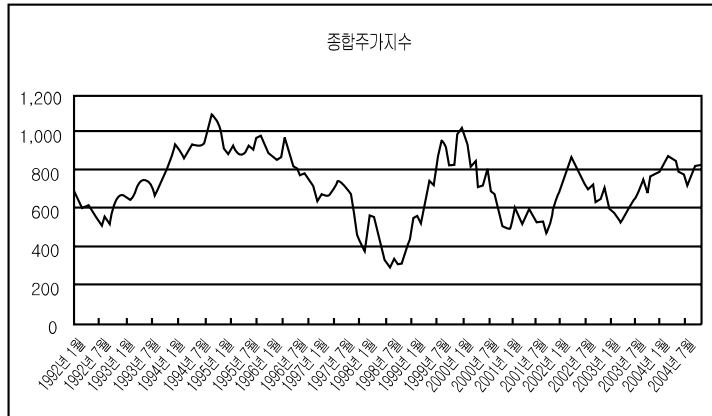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하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허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을 간단히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는 경제규모 및 경제수준, 자산운용산업 규모와 자산시장의 국제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면에서만 싱가포르를 앞설 뿐 경제수준(1인당 GDP), 자산시장의 효율성(GCP 대비 상장주식시가총액) 및 자산운용산업 규모, 자산운용산업의 국제성(CDP 대비 해외포트폴리오투자자산) 부문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⁴⁾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다음 절에서는 싱가포르 등 선진 자산운용산업 보유국의 자산운용산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국가들의 자산운용산업의 역사와 특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3) 외국계 자산운용사 국내진출 현황은 고광수(2003), pp. 133-134 참고.

4) 미국의 경우 국제성은 약하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산업 보유 국가이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산업 현황과 경제정책 시사점에 관한 고찰



[그림 1] 종합주가지수(KOSPI) 추이

<표 2> 자산운용산업 관련 기본지표 비교

	GDP (억 달러)	1인당GDP (달러)	상장주식 시가총액 (억 달러)	기관투자가 보유금융자산 (억 달러)	뮤추얼펀드규모 (억 달러)	해외포트폴리오 투자자산 (억 달러)
한 국	4,687	9,797	2,200	2,965	1,295	55
미 국	104,456	36,552	138,104	194,509	70,620	947
영 국	15,552	25,894	2,217	32,648	3,465	1,343
싱가포르	870	20,906	1,173	-	-	113
기준연도	2002	2002	2001	2000	2003	2002

자료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 (2003).

III.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뮤추얼펀드 지역본부뿐 아니라 헤지펀드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아시아내 금융허브를 넘어 글로벌 금융허브를 꿈꾸고 있다.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은 100% 정부출자 공기업인 GIG와 테마섹 홀딩스⁵⁾가 양대 축을 이루며, 이들의 엄청난

5) 테마섹 홀딩는 2003년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BII 은행을 인수하였으며, 2004년 한국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하나은행 9.99% 인수를 승인받은 바 있다. 항공, 전력, 조선 등 자국 기간산업

규모의 자산운용은 국제금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1) 자산운용업 발전전략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산업 육성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1999년 MAS는 다수의 부티크 펀드매니지먼트 회사(BMFs)의 자격을 인정하여 시장을 확장시킨다는 골자의 라이선싱제도를 확립하였다. BMFs는 숙련된 펀드매니지먼트 전문가가 직접 경영하며, 선별된 기관 및 VIP고객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0년 3월 현재 MAS가 인증한 투자상담 라이선스를 취득한 BMFs는 총 3개사이다.

둘째로 전략적으로 정부기금을 외부 전문 매니지먼트 기업에 외주하는데 일례로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MAS와 GIC는 350억 달러의 정부기금을 외부 펀드매니저에게 위탁 운영하였다. 이는 종자돈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들의 싱가포르 진출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정책이다. 또한 CPF⁷⁾는 품질 자산관리자의 수와 CPF 멤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수를 늘리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전문 경영에 필요한 국내자금 풀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자산운용업의 성과

2003년 싱가포르 자산운용산업 서베이에 따르면 2003년도 관리자산 규모는 4,652천억 싱가포르달러로 3,438천억 싱가포르달러였던 2002년 말에 비해 35% 성장하였다. 이 중 일임형 자산은 2,546천억 싱가포르달러, 비일임형 자산은 2,106천억 싱가포르달러이며, 지난 6년간 비일임형 자산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일임형 자산의 증가는 아시아지역의 이자율 갱신, 싱가포르에서의 지역 포트폴리오 경영 중심화 경향, 시장의 평가절상에 의한 것이다. 2003년 기준 일임형 자산의 구성비율은 각각 주식 1,314억 싱가포르달러(52%), 채권 613억

투자에 주력하던 테마섹은 최근 DBS 은행(싱가포르), 다나몬은행(인도네시아), ICICI 은행(인도) 등 아시아권 은행에 투자포커스를 맞추며 “팬 아시아(Pan-Asia)”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운용자산은 약 40조 원이다.

6) 우리나라 KIC 운용시에도 운용자금의 일부를 외국기관에 위임하여 기금 운용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이를 외국기관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The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싱가포르의 사회보장계획으로서 퇴직, 건강, 주택, 가족보호, 자산향상을 지원한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산업 현황과 경제정책 시사점에 관한 고찰

가포르달러(9%), 예금 175억 싱가포르달러(7%), 화폐시장상품 29억 싱가포르달러(1%), 기타 171억 싱가포르달러(1%)이다. 이는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식은 46%, 채권은 10%씩 규모가 늘어났다. 헤지펀드, 부동산, 비상장주식 투자 등 대안적 투자활동은 펀드매니징의 다각화와 헤지펀드 투자실적 개선에 힘입어 53% 성장하였다.

<표 3> 일임형 자산투자의 구성

	2002		2003	
	액 수 (억 싱가포르달러)	비 율	액 수 (억 싱가포르달러)	비 율
주 식	898	49	1,314	52
채 권	557	30	613	24
집합투자계획현금, 예치, 머니마켓 상품	128	7	244	9
	194	11	175	7
대체투자	19	1	29	1
기 타	38	2	171	7
총 계	1,834	100	2,546	100

자료 : 『2003 싱가포르 자산관리산업서베이』, (2004).

펀드 투자대상지역은 우선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총펀드의 63%가 투자되었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 투자량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한국, 타이완에 대한 투자는 2003년 현재 440억 달러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다. 지역별 펀드 투자비율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46%, 싱가포르 14%, 유럽 10%, 북아메리카 8%, 기타 22%이다. 지역별 주식투자비율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66%, 싱가포르 10%, 유럽 9%, 북아메리카 6%, 기타 9%이고 지역별 채권투자비율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24%, 싱가포르 31%, 유럽 18%, 북아메리카 18%, 기타 9%이다.

자산운용사의 수는 2003년 현재 230개로, 전년대비 19개 증가하였다. 10억 달러 이상의 일임형 관리자산을 운용하는 애셋매니지먼트 회사의 수는 전년대비 10개 증가한 45개이며, 100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회사는 6개 증가한 9개이다. 순수 국내투자기업(지분의 50% 이상이 싱가포르 국민에 의해 취득된 회사)은 2003년에 13개가 추가되어, 총 96개의 토종 기업이 일임형 관리자산 551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96개사에 고용된 전문인력의 수는 391명이다.

<표 4> 자산운용회사의 수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191	218	221	211	230

자료 : 『2003 싱가포르 자산관리산업서베이』, (2004).

<표 5> 일임형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단위 : 싱가포르달러)

	회사수	
	2002	2003
100억 이상	3	9
50억~100억	9	6
10억~50억	23	30
10억 이하	123	117
총 계	158	162

자료 : 『2003 싱가포르 자산관리산업서베이』, (2004).

싱가포르 자산운용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688명과 투자분석가 275명, 자산배분전문가와 경제학자 23명으로 구성되어 2003년 현재 총 986명이다. 한편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투자분석가 중 854명이 상품전문가이며, 대다수는 채권전문가이다(채권전문가 53%, 증권전문가 20% 등).

2003년 말 현재 집합투자기구(CIS) 관리자산은 전년 141억 달러에서 1932억 달러로, CIS 수는 382개에서 401개로 증가하였다. CPF 인증 CIS는 전체 CIS 수 중 57%(401개 중 230개)를 차지하며, 전체 CIS 관리자산규모에서는 70%(192억 달러 중 134억 달러)를 차지한다.

2.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GIC는 1981년, 싱가포르 경제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잉여자산을 보존하고 증대시키자는 리관유 전 총리의 구상으로, 미화 75억 달러의 운용자산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리관유가 이사회 의장을, 리셴룽 부총리 총리가 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부출자 100% 공기업 성격이지만 정부와 의회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민간기관으로 민간투자자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 2001년 이후 투자내역을 전면 비공개로 하고 있다. 조직망을 보면 싱가포르 본부 및 5개 해외지사(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이징, 도쿄)를 두고 있으며 30개 이

상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GIC는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Pte Ltd, GIC Real Estate Pte Ltd, GIC Special Investments Pte Ltd 등 총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자산은 2003년 현재 한화 240조 원에 달하고 있다. GIC는 싱가포르 외환보유액과 국채매각대금, 재정잉여자금, 국민연금 등을 운용하며 채권, 주식, 선물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단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⁸⁾

인력 면에서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립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의 투자매니저들을 고용하여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자국 고유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회사직원을 타 펀드회사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하고 외부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유치하였다. 현재 730명의 임직원 중 130명이 외국에서 영입된 직원이다. 수익성 면에서는 설립 이래 꾸준히 10%대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GIC는 보수적인 운용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G3의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정도의 목표 수익률과 정부위탁자산의 국제적 구매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GIC는 자산관리업무의 일부를 외주로 할당하여,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를 싱가포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3.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싱가포르는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하여 다야아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1) 재무인센티브제도(Financial Sector Incentive : FSI)

재무인센티브제도는 기준별(Standard-tier : ST)로 적격활동을 제시하고 ST 적격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ST award를 수상한 회사에 한해 10%의 감세 혜택이 있다.

2) QPC(적격 프로세싱 서비스 회사)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QPC 세금 인센티브제도는 싱가포르내 금융기관들에 고부가가치 프로세싱 서비스를 제공

8) GIC는 IMF 외환위기 이후 매입한 파이낸스센터 빌딩(4,300억 원), 프라임타워(옛 아시아나빌딩, 500억 원), 코오롱빌딩(760억 원), 무교빌딩(430억 원) 등 국내 대형 빌딩 투자액만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랜드 계열 '2001 아웃렛'에 5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고, 대우종합기계 인수 전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하는 회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PC는 명시된 프로세싱 서비스에 대해 특혜세 5%의 혜택을 받는데 이는 Treasury and Securities, 자산운용, 개인금융, 도매금융 및 소매금융 등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본 세금 인센티브제도에 합당한 주요프로세싱 서비스로는 결제, 정산, 현금운용, 상품통제, 주식차입·대출프로세싱, 포트폴리오 가치평가 등이 있다. 또한 부수적 서비스로는 리스크 관리, IT 구축, 재무통제, 경영정보리포팅 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본 세금 인센티브제도를 따른다.

3) 보험업 인센티브

역외 보험회사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역외 보험업의 투자기금과 역외 프리미엄 수익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하여 특혜를 제공한다. 해상·선박 및 배상책임 보험업에 대해서도 세금가면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상·선박 및 배상책임 보험업의 언더라이팅 수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재정보증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정책하에 인증된 재무보증보험자가 비거주인에게 요구하는 납입금에 대해서는 원천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4) 금융 및 재정 서비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싱가포르내 다국적회사들의 금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회사들에 금융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10%의 특혜세를 허가하고 있다. 해외은행이나 관련 회사들로부터 대출한 외국부채에 대한 이자 역시 원천징수세에서 제외된다.

5) 인증신탁회사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우수한 신탁회사와 은행을 발전시켜 국제 신탁관리와 수탁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신탁회사(ATC)가 수행하는 특정 서비스의 수익에 대하여 10% 특혜세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 내용으로는 재산양도인과 신탁수익자가 싱가포르 거주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의 신탁 및 수탁서비스, 싱가포르 거주자 혹은 시민권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투자신탁에 대한, 또는 그를 대신한 신탁 및 수탁서비스, 외국채권이나 주식대출에 대한 신탁 및 수탁서비스,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발행주식을 거래할 때 외환 수탁서비스, 적격의 투자신탁지주회사의 투자운용 및 기금조성을 포함한, 외국신탁에 대한 관리 혹은 운영서비스를 포함한다.

6) 채권거래 관련 인센티브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적격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에 대해 10%의 특혜세를 허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의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달러 채권 발행과 관련된 스왑에 대해서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며 채무증권 발행인은 적격 채무증권에 지불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한다는 소득세 조항의 S4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4.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경제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권, 채권시장의 규모가 크고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2004년 말 현재 2천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영어가 능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규제, 금융감독시스템에서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높은 금융시장 개방도, 풍부한 세계 혜택 및 인센티브, 영어에 능통한 인력 및 금융

<표 6>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한 국	싱가포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국내시장 규모 · 우수한 IT 인프라 · 충분한 외환보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세계 혜택 · 높은 금융시장 개방도 : 활발한 국제거래, 아시아 최대의 외국인투자기관 유치국가 · 영어 통용 · 높은 독립성 · GIC의 개방적 조직문화와 정책의 일관성 : 높은 예측 가능성으로 투자기관들에 어필 · 자금 운용의 풍부한 유동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갖춘 인재확보문제 · GIC와 같이 정보비공개가 어려운 사회분위기. 투명성 유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 · 제약이 많은 규제시스템 · 비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 · 은행중심의 자본시장구조 · 채권시장의 외국인 참여와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 미미 · 소규모 외환매매(싱가포르의 1/9 수준) · 영어가 통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시장 협소(경제규모는 한국의 1/10) · 정책적 폐쇄성

전문인력의 수급 원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협소한 내수시장과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IV. 경제정책적 시사점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선진 금융센터에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금융거점으로서 싱가포르보다 뒤지고 있고 국내경제 및 시장발전부문에서는 일본에 뒤지며 후발금융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에서는 중국의 상하이 등과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규모, 경제규모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싱가포르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금융산업 발전도에서 이 센터들에 뒤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조건이 상이함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모형의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국내시장규모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금융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신축성, 효율성, 국제성을 보유해야 아시아에서 자산운용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이 센터들 수준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 및 세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KIC의 설립은 외환보유고, 나아가서는 연기금을 활용하여 전문 자산운용사를 육성하는 한편 운용자산의 외주를 통한 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됨에 따라 퇴직연금, 기업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시대적 필요와 정책적 노력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도 자산운용산업의 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라 할 수 있는 영국 런던의 경우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영미권 경제력의 국제화라는 배경하에 현재의 위상을 보이게 되었다. 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국내시장의 크기와 성숙성, 국제지향성, 제도적인 지원, 금융클러스터의 존재, 금융센터와 연계된 offshore 금융센터의 보유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성과 국제적 중심지로서 우수한 인력을 흡인할 수 있었던 자본과 인

력의 허브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역사성과 경제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국제경쟁력 배양의 과정 속에서 우수한 자본과 인력을 끊임없이 유치해나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인 것은 분명하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성격상 정보의 주도하에 주로 GIC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업 육성을 추진하여 왔고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국제적인 업무환경 제공에 있다. 국제적으로 자산운용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양질의 경영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각종의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이 자산운용업 활성화의 부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 사례를 따라 KIC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경영환경 제고, 전문인력 공급, 각종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규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동 산업의 발전동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상기에서 제시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내 자산운용업의 발전이 선행되고, 국내 자산운용업의 규모가 커져야 하며, 외국기업 유치 및 자산운용의 국제화 등 자산운용업의 국제성이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운용자산 등의 전통적인 운용방법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부분을 중점 육성해야 하고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참고문헌

- 고광수, 2003. 『자산운용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노무라연구소, 2003.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평가: 서울, 동경, 홍콩, 북경, 상하이, 싱가포르 6대 도시 비교』.
안창국, 2002. 10.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을 통해서 본 통합법제정의 기본방향』, 『투신』, 제35호, 투자신탁협회.
안형도·류재원 편, 2003.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 사례연구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숙, 2004. 7. 『국제 큰손 GIC 베일을 벗긴다』, 『economy 21』.

- 자산운용협회, 2004. 4. 『선진국의 자산운용사 위험에 관한 논의 : IOSCO, ICI, FEFSI 보고서를 중심으로』.
- 투자신탁협회, 2003. 7. 『주요국 자산운용회사의 M&A 동향 및 성공모델에서의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2003. 8. 『금융회사 자산운용 제도개선 및 통합규율체제 구축방안』.
- 한국은행. 『금융위기 이후 일반은행 자산운용의 국제비교』.
- 한정민, 2003. 5. 『개인금융 자산운용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생존경쟁』, 『LG주간경제』.
- Boston Consulting Group. “Global Wealth Report.” Global Asset Management <http://www.bcg.com>
- Bridgewell. “Themes in Global Fund Management.” <http://www.bridgewell.co.uk>
- ComPeer Limited. “Private Client Stockbroking & Fund Management Survey.” <http://www.compeer.co.uk>
- Deloitte. 2004 “Asset Management Industry Outlook: 2004 Top Ten Issues.”
- Fargher, N. and A. A. Gramling. 2003. “Research Note: The Influence of Attestation on Users’ Perceptions of Assertion Credibility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7, pp. 87-100/
-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Funds Under Management, Fund Management Survey.” <http://www.investmentuk.org>
- Merryll Lynch/Cap Gemini. “World Wealth Report” <http://www.mi.com>.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verview of Asset Management Industry.”
- _____. “Tax Incentive Scheme for Asset Management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urvey of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 Seoul Financial Forum. 2003. “Korea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Vision and Strategy.”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Asset Management and Major Implications of Economic Policy in Korea & Singapore

- Focused on Financial Hub in Northeast -

Myoung-Pyo Lee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seven tasks to become a financial hub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targeted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as a leading sector for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financial hub. This study reviews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in Singapore.

Singapore chose the government-led promotion policy by establishing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nd deregulation served the nation in developing a financial hub in the region.